

2019 2차 경찰시험(8/31)

출제경향과 대책

1) 난이도 : 중상 : 대부분 평범한 문제였지만, 근현대사 문제가 다소 헛갈리거나 어려웠다.(하 난이도 10개)
- 최상위권은 90-95점 이상을 맞았을 것이며, 85점 이상이면 합격선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법흥왕때 일어난 사건 순서, 이익과 박지원의 한전론 비교, 봉오동전투

② **중요한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였다.**

(해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고득점의 길이다.)

2) 출제비중 :

①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은 15:5였으며, 근현대사는 20번 제헌국회의 구성이 이번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19번 봉오동전투의 경우에는 현재 [봉오동전투]가 상영 중인 것이 출제요인이 되었을 것이라 본다.)

② 전근대사의 경우 정치사 위주로 나왔다. 문화사 문제가 난이도가 있었지만, 수업 제대로 들은 학생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이익과 박지원의 한전론 비교/ 최한기의 지구전요 등은 기본 숙지사항이다.)

[대책]

이번 시험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평이하게 출제된 편이다.(성적이 안 좋은 학생도 당황했기 때문이지 문제 자체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되었다.) 고로 다음 시험은 지금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① **중요한 것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 시험을 보고 더 지엽적인 것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번 시험은 지엽적인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얼마나 기본 지식을 확실히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었다.** 문제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지엽적인 내용은 20번빼고는 없었다.(근데 20번은 지엽적인 것 공부한 학생들도 대부분 틀렸을 것이다.)

② **단순 암기로는 절대 커버 안된다. 이해가 중요하다 ! (쓸데없는 두문자 너무 열심히 외우기보다는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법흥왕 때 순서문은 문제는 연도 암기같은 것으로는 맞추기보다는, 당시의 왕권강화 과정을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였다. 이번시험보고 법흥왕대의 연도 암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다른 왕의 업적 순서가 나올 것이다. 뒷북치는 단순암기는 자제하자.)

③ **근현대사 문제 중에서 현재 시사적인 문제가 나오는 편이다.**(2019년 1차 시험에서 20번 4.27판문점 선언이 출제되었는데 시험일인 4월27일이 1주년되는 되는 날이었고, 이번 시험에서는 현재 상영중인 [봉오동전투]가 사료로 나왔다)

1. 선사시대의 생활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후기구석기시대에는 스펀지찌르개가 제작되었다.
- ② 동삼동패총에서는 조개껍데기 가면이 출토되어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예술 활동을 알려준다.
- ③ 신석기시대에는 조, 피, 수수 등이 재배되었고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 ④ 청동기시대에는 고인들이 등장하고 미송리식 토기가 사용되었다.

답 : ③	
해설 ①②④가 선사시대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옳지않은 것] ③ 벼농사는 청동기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난이도 : 하

2. 다음 자료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군장이 없고 한(漢) 시대 이래로 후(候), 읍군(邑君), 삼로(三老)라는 관직이 있어 하호(下戶)를 다스렸다. [중략]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삼국지』 위서동이전-

① 남의 물건을 훔치면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② 특산물로 단궁(檀弓), 반어피(班漁皮), 과하마(果下馬) 등이 유명하였다.	
③ 혼인제도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④ 10월에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거행하였다.	
답 : ②	
해설 제시문의 나라는 동예이다.(읍군 삼로라는 군장, 책화 풍습) , 옳은 것은 ② → 동예는 특산물로 단궁(檀弓), 반어피(班漁皮), 과하마(果下馬) 등이 유명하였다.	
[오답체크] ① 부여, 고구려의 1책12벌 ③ 옥저의 민며느리제 ④ 고구려의 동맹	
	난이도 : 하

3. 다음 밑줄 친 고구려왕의 재위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고구려왕 거련(巨連)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을 포위하였다. 임금이 성문을 닫고 나가 싸우지 못하였다. [중략] 임금은 상황이 어렵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고구려 병사가 추격하여 임금을 살해하였다.

<보 기>	
㉠ 후연을 격파하여 요동지역을 확보했다.	
㉡ 도읍지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 부여를 복속하여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① ㉠㉡㉢ ② ㉠㉢㉣ ③ ㉠㉣㉣ ④ ㉡㉢㉣	
답 : ③	
해설 제시문의 고구려왕은 장수왕이다. (한성 포위, 백제 개로왕의 피살), 옳은 것은 ㉡ → 옳지않은 것 ㉠㉢㉣	
[옳지않은 것] ㉠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지역을 확보한 것은 광개토대왕 ㉢ 부여를 복속하여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한 것은 장수왕의 손자인 문자명왕이다. ㉣ 영락은 광개토대왕의 연호	
	난이도 : 중

4. 신라와 가야 연맹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을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신라에서는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 ㉡ 금관가야는 신라에 의해 결국 병합되었다.
- ㉢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

㉔ 대가야는 신라와 결혼 동맹을 체결하였다.

① ㉔-㉔-㉔-㉔

② ㉔-㉔-㉔-㉔

③ ㉔-㉔-㉔-㉔

④ ㉔-㉔-㉔-㉔

답 : ①

해설 ㉔ 지증왕의 우산국 복속 -㉔ 법흥왕 때 결혼동맹(512) -㉔ 법흥왕때 불교공인(527) -㉔ 법흥왕때 금관가야 병합(532)

■ 결혼동맹과 금관가야의 멸망 : 대가야 이뇌왕(異腦王)은 522년에 신라에게 청혼하여 결혼동맹이 결성되었다(신라 법흥왕). 그러나 몇 년 후에 이 동맹은 파탄에 이르고, 그에 따라 가야연맹 내부에는 분열의 조짐이 생겨났다. 이를 포착한 신라는 무력 공세를 통하여 영산의 탁기탄국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으며, 뒤이어 532년에 김해의 금관국(남가라국)이 신라에 투항하였다

● 법흥왕때 사건이 3개가 나오지만, 법흥왕(514-540)의 불교공인으로 왕권강화가 이루어졌음을 안다면, 금관가야 병합은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난이도 : 상(센스)

5.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후가 좋지 않고 토지가 척박하여 농업은 콩, 보리, 조 등을 재배하는 밭농사 중심이었다.

② 불교가 장려됨에 따라 여러 불상이 제작되었다.

③ 당을 견제하기 위해 북으로는 거란, 남으로는 일본과 통교하였다.

④ 8세기 전반에는 당과 대립하였으나 8세기 후반부터 친선관계로 바뀌었다.

답 : ③

해설 ①②④가 발해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옳지않은 것]③발해는 무왕은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북으로는 돌궐, 남으로는 일본과 통교하였다.

난이도 : 하

6. 다음 고려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왕의 이름은 소(昭)다. 치세 초반에는 신하에게 예를 갖추어 대우하고 송사를 처리하는 데 현명하였다. [중략] 밤낮으로 부지런하여 거의 태평의 정치를 이루었다. 중반 이후로는 신하를 많이 죽이고, 불법(佛法)을 지나치게 좋아하며 절도가 없이 사치스러웠다.

①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② 불교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시무 28조를 수용하였다.

③ 관리의 등급에 따라 자색, 단색, 비색, 녹색으로 공복을 구분하였다.

④ 공신 자제의 우선 등용을 막기 위해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답 : ②

해설 제시문의 왕은 고려 4대왕 광종이다. (왕소, 중반 이후로는 신하를 많이 죽이고 = 호족숙청)→ ①③④가 광종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노비안검법, 자단비녹의 4색 공복, 과거제 실시)

[옳지않은 것]② 시무28조를 수용한 것은 6대 성종이다.

난이도 : 하

7. 고려시대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북방의 국경지대에는 동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고 도독을 파견하였다.

② 중앙에서 지방을 견제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③ 지방행정 말단조직으로 면·리·통을 두었다.

④ 조세와 공물의 징수 등 지방행정의 실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답 : ④

해설 ④가 옳다. 고려는 조세와 공물의 징수 등 지방행정의 실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오답체크] ①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② 외사정은 신라의 지방관 감찰담당 ③ 면리통을 둔 것은 조선시대 때이다. (조선시대에는 군현 아래에는 면, 리, 통을 두었다. 다섯집을 하나의 통으로 편성 향민중에 책임자(권농,이정,통주)를 선임하여 수령이 임명하였고, 인구 파악과 부역 징발을 주로 담당하게 하였다.)

난이도 : 하

8. 고려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 ㉠ 윤관의 여진 정벌 | ㉡ 천리장성 축조 |
| ㉢ 귀주 대첩 | ㉣ 동북 9성 환부 |
| ① ㉡-㉢-㉠-㉣ | ② ㉡-㉢-㉣-㉠ |
| ③ ㉢-㉡-㉠-㉣ | ④ ㉢-㉡-㉣-㉠ |

답 : ③

해설 ㉢ 귀주대첩(거란의 3차 침략) -㉡ 천리장성 축조(거란 3차 침략이후) -㉠ 윤관의 여진정벌(윤관은 예종 때 여진족을 토벌하고 이곳에 9성을 축조하였다.1107)-㉣ 동북9성 환부(1년 7개월 만에 여진의 간청과 방어 어려움 때문에 여진족에게 되돌려 주었다.)

☛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스토리만 알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다.

난이도 : 하

9. 고려시대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 ② 부모의 재산은 남녀 관계없이 고루 분배되었으며,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 ③ 제사는 형제자매가 돌아가면서 지냈다.
- ④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답 : ②

해설 ①③④가 고려시대 사회상으로 옳은 설명이다.

[옳지않은 것]② 부모의 재산은 남녀 관계없이 고루 분배되었고,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을 두지는 않았다.

☑ 족보의 변화 : 조선 초기의 족보에 아들과 딸을 기재하는 순서는 출생 순서에 따른 기재방식을 따르고 있었다(이때는 아들만이 아니라 딸의 후손도 모두 수록하여 일종의 만성보(萬姓譜) 성격을 가졌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연령에 관계없이 아들을 먼저 기재하고 딸(사위)을 나중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난이도 : 하

10. 다음은 어느 역사서의 일부분이다. 이 역사서가 저술된 시대에 축조된 문화재는?

“신들의 생각으로는 신(新)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 는 뜻이고 나(羅)는 ‘사방을 망라한다.’ 는 뜻이므로, 이를 국호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중략] 이제 여러 신하들이 한마음으로 삼가 신라국 왕이라는 칭호를 올립니다.” 라고 하니, 왕이 이에 따랐다.

- ① 원각사지 10층 석탑
- ②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 ③ 감은사지 3층 석탑
- ④ 경천사지 10층 석탑

답 : ④

해설 제시문의 역사서는 고려시대 인종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이다→ 고려시대 문화재는 ④경천사지 10층 석탑

[오답체크] ①원각사지 10층석탑(조선 세조, 국보2호) ② 석가탑(신라 중대 경덕왕 즈음) ③감은사지3층석탑(신라 중대 신문왕)

☑ 고려의 석탑

전기	① 현화사7층석탑(신라양식계승+고려의 독창미), 불일사5층석탑(고구려 영향) ② 송의 영향 → 월정사8각9층탑 (다각다층탑)
후기	원의 영향(라마교) → 경천사10층석탑(現 국립중앙박물관)

● 삼국사기인지, 삼국유사인지 몰라도 고려시대 문화제는 하나밖에 없어서 쉽게 답을 쓸 수 있었다.

난이도 : 중

11. 다음은 사건과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사실은?

임진왜란 이후 에도(도쿠가와) 막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막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조선에 국교 재개를 요청하였다. 조선도 1607년 부산 두모포에 다시 왜관을 설치한 이후 북방에서 여진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① 정미약조 ② 기유약조 ③ 비변사(임시기구) 설치 ④ 계해약조	
답 : ② 해설 제시문은 1607년(선조 40년)때 있었던 국교 재개이다. 가장 근접한 것은 ②기유약조이다.→ 국교재개 2년 후인 1609년(광해군 2년)에 기유약조를 통하여 무역을 재개하였다. [오답체크] ①③④는 모두 임진왜란 이전(정미약조는 명종때, 비변사 설치는 중종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계해약조는 세종때)	
난이도 : 중	

12. 다음 종교와 성격이 같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교리는 유교, 불교, 도교 세 교의 내용을 대충 취하여 부연하고 또 하느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기독교의 주장을 취하여 하느님이 인간의 화와 복을 실제로 맡고 있다고 한 것으로서 시골 백성들이 많이 믿었으며 보국안민을 빌었다. ① “한울님이 대답하길 ‘그렇지 않다. 나에게 신령한 부적이 있으니 [중략] 나에게 이 부적을 받아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구하고, 나에게 이 주문을 받아 나를 위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면 너 또한 [중략] 덕을 천하에 펼 수 있으리라.’ 라고 하셨다.” ② “전선 수백 척과 정예 병사 5, 6만을 얻어서 대포 등 예리한 무기를 많이 싣고 우리나라 해변에 와서 국왕에게 글을 보내기를 ‘우리는 전교를 목적으로 온 것이지 재물을 탐하여 온 것이 아니므로 선교사를 용납하여 받아들여 달라.’ 라고 해 주소서.” ③ “잘못된 집안 자손이나 벼슬길이 막힌 첩 자손이나 뜻을 잃고 나라를 원망하는 무리들, 아래로는 어리석은 백성, 그릇된 행위를 하는 무리들이 서로 교우라 부르며, 사실을 두루 숨기고 한편이 되었다.” ④ “비록 지극한 효자라 할지라도 맛 좋은 것이라 하여 부모가 잠들어 있는 앞에 차려 드릴 수 없는 것은 잠 들었을 동안에는 먹고 마시는 때가 아닌 까닭입니다. [중략] 사람의 자식이 되어 어찌 허위와 가식의 예로써 이미 돌아간 부모를 섬기겠습니까?”	
답 : ① 해설 제시문의 종교는 동학이다.(유불선의 3교에 민간신앙을 가미한 종교, 후천개벽과 보국안민을 주장하였다.) → 옳은 것은 ①(한울님,동학은 부적과 주술사용을 중요시했다.) [오답체크] ② ③ ④는 모두 천주교(천주교의 평등사상, 제사거부)	
난이도 :	

13. 다음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가에서 한 집의 재산을 올바로 측량하고 농토 및 부(負)를 한정하여 한 집의 영업전으로 만들어 주되 당나라 제도처럼 운영한다. 농토가 많은 사람은 빼앗지 않고,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더 주지 않으며 [중략] 농토가 많아서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영업전 몇 부를 제외하고는 역시 허락한다. ㉡ 진정 한제(限制)를 만들어서 모년 모월 이후 이 한제 이상으로 많은 자는 더 이상 사들이지 못하게 하고, 법령 공포 이전에 사들인 것은 비록 산천을 경계로 할 정도로 광점하더라도 불문에 붙인다. [중략] 법령 공포 후에 한제를 넘어서 가점(加占)하는 자는 백성들이 적발하면 백성에게 주고, 관에서 적발하면 몰수한다.	
① ㉠은 『곽우록』의 내용으로 조선후기 상품작물 경작의 현실을 반영하여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시하였다.	

- ② ㉠은 한 마을 사람들이 토지를 공동 경작한 후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토지개혁론과 관계가 있다.
 ③ ㉡의 저자는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한 농업 생산력 향상에 관심을 기울였다.
 ④ ㉢은 관리, 선비, 농민 등에게 차등을 두어 토지를 분배하자는 토지개혁론의 일부이다.

답 : ③

해설 ㉠ 중농학파인 이익의 한전론(영업전의 매매제한) ㉡ 중상학파인 박지원의 한전론(토지소유의 상한선)→ 적절한 것은 ③, 박지원은 중상학파로서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한 농업 생산력 향상에 관심을 기울였다.

[오답체크] ① 이익이 곽우록을 쓴 것은 맞지만, 토지소유의 상한선을 제시한 한전론은 박지원의 주장이다. ② 정약용의 여전론 ④ 신분차별이 있는 균전론을 주장한 것은 중농학과 실학자 유형원이다.

난이도 : 중

14. 조선후기에는 전통적 과학 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큰 진전을 보였다. 17세기경부터 중국을 왕래하던 조선의 사신들은 서양 선교사와 접촉하고 서양의 과학 기구와 각종 서적을 조선에 들여왔다. 당시의 사실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곤여만국전도」 같은 세계지도가 전해짐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리학의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② 김석문은 『역학도해』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하여 우주관을 전환시켰다.
 ③ 홍대용은 김석문과 함께 지전설을 주장하였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을 주장하였다.
 ④ 이광정은 『지구전요』에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함께 주장하였고, 자전과 공전설이 코페르니쿠스의 것임을 밝혔다.

답 : ④

해설 ①②③이 조선후기 과학기술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곤여만국전도의 전래, 지전설을 최초로 주장한 김석문, 지전설과 함께 무한우주론까지 주장한 홍대용)

[옳지않은 것] ④[지구전요]는 철종때 최한기가 중국 위원의「해국도지」, 서계여의「영환지략」등을 바탕으로 쓴 세계 지리서이다. (이광정은 곤여만국전도를 조선에 전래한 분이다.)

☑ 최한기 : 최한기는 세계 각국의 견문과 실험결과를 혼자 힘으로 집성하여 자신의 학문을 기학이라 이름하였다. 그는 조선의 개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현실문제를 비판, 과감한 개혁을 부르짖는 등 실학과 학자들의 전통을 계승하여, 뒤이어 등장하는 개화사상가들의 선구가 되었다. 천문·지리·농학·의학·수학 등 학문 전반에 박학하여 1,000여 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현재는 15종 80여 권만이 남아 있다. [명남루총서]는 그의 저작을 모아놓은 것이다.

난이도 : 중상

15. 다음 왕의 치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달은 하나이며 물은 수만이다. 물이 달을 받으므로 앞 시내에도 달이요, 뒤 시내에도 달이다. 달의 수는 시내의 수와 같은데 시내가 만 개에 이르더라도 그렇다. 그 이유는 하늘에 있는 달이 본디 하나이기 때문이다. 달은 본래 천연으로 밝은 빛을 발하며, 아래로 내려와서는 물을 만나 빛을 낸다. 물은 세상 사람이며, 비추어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달은 태극이며, 태극은 바로 나다.

- ① 스스로 초월적 군주로 군림하면서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양성하고 재교육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초계문신제도를 시행하였다.
 ② 『대전통편』 편찬과 같은 법전 재정비를 통하여 국가의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③ 죄인의 가족을 잡아 가두는 법을 폐지하고, 노비에 대한 상전의 사적인 형벌을 철저히 금했으며,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여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려 하였다.
 ④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사상(私商)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어느 정도 가능케 했다.

답 : ③

해설 제시문이 왕은 정조이다.(自號 만천명월 주인옹)→ ①②④가 정조의 업적이다.(초계문신제도, 대전통편, 금난전권을 폐지한 신해통공)

[옳지않은 것] ③ 영조의 업적이다.

☑ 신문고 : 사헌부에서 해결을 보지 못한 억울한 사정을 대궐 문밖의 복을 쳐서 직접 호소하게 하였다. 그러나

하극상은 금하고, 자신에 관한 것, 부자·적첩(嫡妾)·양친 등에 관한 것에 한하였으며, 상관을 고발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하여 일반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태종 때 의금부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영조 때 다시 부활되었다(이는 병조에서 관리하였다).	
	난이도 : 하

16. 강화도 조약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 제4관 조선정부는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이곳에서 토지를 빌려 집을 짓거나 조선인민에게 집을 빌리도록 허가한다. ㉢ 제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에서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서 지명을 지정한다. ㉣ 제7관 조선국 연해의 도서와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위치와 깊이를 상세히 조사하여 지도를 만들어 두 나라 선객이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한다. ㉤ 제8관 이제부터 일본국의 정부는 조선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사건이 제기되면 소재지의 지방 장관과 만나서 토의 처리한다. ㉥ 제9관 양국 인민의 무역에 대하여 양국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여하지 않으며 제한을 설정하거나 금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었거나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하고 일본국 인민과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조선국 관원이 조사한다. 단, 각각 해당 국가의 국법으로 심판하되 공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답 : ③ 해설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다. →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은 ㉢연해의 자유측량 허용, ㉤치외법권 인정이다.	
	난이도 : 하(센스문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금방 답 나온다.)

17. 다음 사업의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는 권리의 득실, 이전과 변경을 사문기(私文記)나,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 사람의 권리를 원용함을 상례로 하였다. 이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해결이 어려웠다. 이에 특별히 조사국을 설치하여 지적(地積)의 어지러움을 정리하고 소유권을 확인하며 재정의 기초를 세우게 하려고 한다.	
① 농민의 토지 소유권 확대	② 지주-소작제 강화
③ 일본인 지주 증가	④ 화전민, 이주민 증가

답 : ① 해설 제시문은 일제가 토지조사국 설치하여 1910년대(1912~1918)에 단행한 토지조사사업이다. →②③④가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옳다.(지주소작제 강화, 일본인 지주 증가, 삶의 터전이 없어진 농민들의 화전민화, 국외 이주민 증가) [옳지않은 것] ① 일부 지주의 토지소유권이 강화된 측면은 있지만 대다수 농민은 급속한 몰락을 하게 된다. (전 국토의 40%가 일본에게 탈취당하였다.)	
	난이도 : 하

18.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서 마련한 임시헌장의 개정 명칭과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차개헌(1919) 임시헌법-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 절충 ② 제2차개헌(1925) 임시헌장-국무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 ③ 제3차개헌(1927) 임시약헌-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 ④ 제4차개헌(1940) 임시약헌-주석 지도 체제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답 : ② 해설 ①③④가 임시정부의 개헌과정으로 옳다.	

[옳지않은 것]② 2차 개헌은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지도체제였다.(국무총리 X)

☑ 임시정부의 변화과정

(1919.4) 의장 : 이동녕, 국무총리 : 이승만	
1차개헌(1919.9)	대통령지도체제(대통령 : 이승만, 국무총리 : 이동휘)
국민대표회의! - 박은식(1925.3~9월)	
2차개헌(1925)	국무령제(내각책임지도체제) 국무령 : 이상룡, 양기탁, 안창호, 김구
3차개헌(1927)	국무위원제(집단지도체제)
(1932) 이봉창, 윤봉길 의거 → 상하이 떠나 이동 시기!	
4차개헌(1940)	총칭 정착! → 주석지도체제(주석 : 김구) 산하부대로 광복군 창설!
5차개헌(1944)	주석, 부주석지도체제(주석 : 김구, 부주석 : 김규식)

난이도 : 중

19. 다음 사건 직후에 벌어진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월 7일 상오 7시 북간도에 주둔한 아군 7백은 북로 사령부 소재인 왕청현 000을 향하여 행군하다가 뜻하지 않게 같은 곳을 향하는 적군 3백을 발견하였다. 아군을 지휘하던 000, 000 두 장군은 즉시 적을 공격하였다. 급사격으로 적 1백 20여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고 도주하는 적을 즉시 추격하여 현재 전투 중에 있다.

- ① 일제가 중국 마적을 매수하여 훈춘의 민가,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고, 이를 핑계로 일본 군대를 두만강 이북으로 출병시켰다.
- ②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에 크게 승리하였다.
- ③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일본군과 6일 동안 10여 회에 걸친 전투를 벌여 크게 승리하였다.
- ④ 중국 호로군과 한·중 연합군을 편성하여 쌍성보·사도하자·경박호·동경성·대전자령 전투 등 여러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답 : ①

해설 제시문의 사건은 봉오동전투이다.(북간도, 120명의 사상자) → 옳은 것은 ③훈춘사건, 봉오동 전투이후 일제가 중국 마적을 매수하여 훈춘의 민가,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고, 이를 핑계로 일본 군대를 두만강 이북으로 출병시켰다.

[오답체크] ②1930년대 한중연합군(조선혁명군) ③ 청산리 전투(백운평, 어랑촌) ④1930년대 한중연합군(한국독립군)

봉오동전투 (1920)	만주 독립군 일부가 두만강 건너 국내 일본군과 관청 습격 → 두만강을 건너 독립군을 추격해 온 일본군을 삼둔자에서 격파(삼둔자전투) → 대한독립군(홍범도) , 국민회군 등 연합이 일본군 유인, 섬멸
* 훈춘사건 : 중국이 한국독립군을 토벌하려는 대규모 일본군의 만주진입을 거부하자, 일제가 중국마적들을 매수. 훈춘의 민가와 일 영사관을 습격하도록 조작한 사건.(마적들은 중국인 70여 명, 조선인 7명, 수명의 일본인을 살해하고 비어 있던 일본공사관을 불태웠다.) 이를 구실로 일본군이 만주로 2만 여명에 이르는 대규모병력을 진입시켰고, 마적토벌을 구실로 삼아 훈춘의 조선인과 독립운동가들을 대량학살하였다.	
청산리전투 (1920.10)	독립군은 한인 피해를 우려해 이동 → 북로 군정서군 (김좌진), 대한 독립군(홍범도), 국민회군 등의 독립군 연합 부대는 일본군의 대부대를 맞아, 6일간 10여 차례의 전투에서 일본군 1,200여 명을 사살하고 2천여 명을 부상 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어랑촌, 백운평 전투가 유명)

● 제시문은 봉오동 전투 아니면 청산리 전투인데 ③이 청산리 전투이니, 봉오동전투일 수밖에 없으며, 최근 상영 중인 영화 [봉오동전투]가 출제원인 중 하나가된 듯 하다.

난이도 : 중

20. 다음의 헌법 전문이 공포된 시기의 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하락]

- ① 이 헌법에서는 친일 반민족자의 처벌, 토지 개혁을 통한 지주제 폐지, 지하자원과 산업의 국유화, 사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이익 참가권 등을 규정하였다.
- ②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이 선출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 ③ 이승만은 국회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을 참고하여 여러 당파를 아우르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봉암 등 중도세력도 등용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 ④ 그동안 이승만과 노선을 같이 했던 한국민주당은 각료 배분에서 최대 다수석을 차지함으로써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답 : ④

해설

①②③이 제헌국회 당시 옳은 설명이다. (참고로 조봉암은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였고,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956년 대선에 나와 많은 지지표를 획득했으나, 1958년 일명 진보당사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처형당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④ 무소속이 다수였으며, 독립촉성국민회가 당으로서의 최대의석을 차지했다.

☑ 제헌국회 정당별 의석분포



난이도 : 상상(가장 어려웠던 문제)